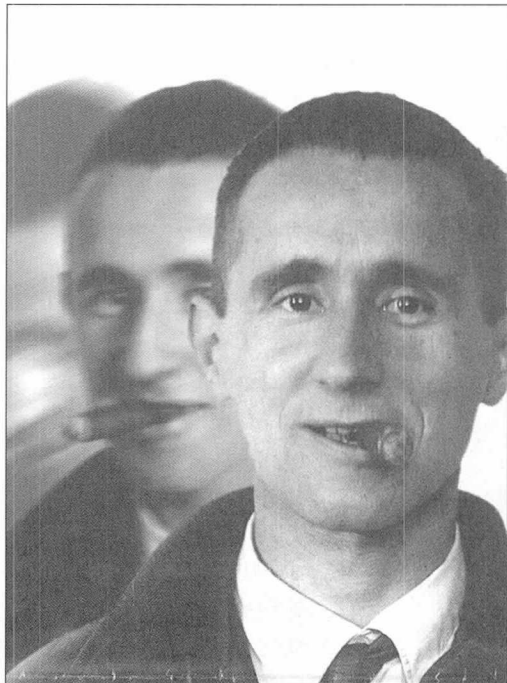


끊임없이 파괴하며 창조하는 실험정신

‘독일의 셰익스피어’ 브레히트와의 대화

이상일

성균관대 명예교수 · 독문학



“나는 반(反)아리스토텔레스 이론가가 아니다. 반대에는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해. 나는 냉철한 사회과학도로서 사실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서사극을 도입했고 그 서사극은 감정보다 이성의 승리를 예감하는 실험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고 봐야 해.”

브레히트.

올해는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태어난 지 백주년이 되는 해다. 브레히트는 ‘독일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대문호이며 20세기 현대의 위대한 극작가이자 시인이다. 독일은 괴테, 쉴러 이후 가장 세계적인 작가를 갖게 된 셈이다.

서구의 문예사조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출발한다. 《시학》에서 나누는 서정시와 서사시(소설) 그리고 드라마의 구분 가운데 드라마는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정화 혹은 배설)’ 이론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존의 연극이론에 ‘서사극 이론’이라는 창조적 반란을 시도한 지점에 브레히트가 놓여 있다.

이것도 냉전의 외딴섬으로 떠 있는 한국의 동숭아트센터에서는 브레히트의 탄생 백주년을 기념해 그의 작품 《쿰틸라와 마티》가 공연되고 있었다. 그 어두운 객석에 이직한 눈매를 빛내며 브레히트가 앉아 있다.

이지적·합리주의적인 마르크시스트의 꿈

이상일 — 이 뜻깊은 자리에서 브레히트 선생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탄생 백주년을 축하합니다. 선생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 희곡론이 여전히 예술

과 문학이론의 확고한 기초로 남아 있을 텐데….

브레히트 — 내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고 세상이 바뀌는 만큼 이념이나 사상, 문학이론도 바뀌게 마련이겠지. 이미 슈타이너 교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소설·드라마 삼분법을 서정시적인 것, 서사시(소설)적인 것, 드라마적인 것이라는 시학의 기본개념을 확대시켜나갔으니까 내가 굳이 비(非)아리스토텔레스 희곡론 혹은 연극론을 주창하지 않았더라도 문학·예술 환경이 바뀌는 만큼 그 이론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을 테지.

이상일 — 브레히트 선생의 탄생 백주년을 고비로 선생의 인품에 대한 논란이 꽤 낮뜨겁게 일고 있는데….

브레히트 — 내가 이기적이라거나 명성을 독점했다거나 여자에 대해서 비정했다거나 하는 뒷소리는 누구나 인격의 다중성으로 해서 듣게 마련인 구설수라 할 수 있겠지. 사람이 어떻게 밝은 빛만으로 조명되겠어.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이고 나라고 해서 어둠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이선생도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교양서로서 《브레히트》를 집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물한 살의 대학생인 나의 사생아

가 1919년에 죽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여성행각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윤리적인 시각의 차이일 뿐이야. 젊은 나는 이지적이며 합리 주의적인 마르크시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 말하자면 이성주의자이고자 했고, 여성에 비정한 남자로, 성공을 탐하는 출세주의자로 비치기도 했을 거야.

이상일 — 다른 것은 몰라도 작품을 공동 집필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창작물인 것처럼 슬쩍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처세인 것 같은데….

브레히트 — 공동집필·제작에도 중심인물이 있게 마련이고 그 작품의 성공여부를 떠나 시간이 지나면 지역적인 관련인사들 영향은 사라지게 마련이지. 핵심테마가 무엇이며 누가 그 주제를 키워냈는가, 어떻게 키워냈는가에 따라 작품에 대한 작가의 관여가 좌우되어야지, 단지 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저작권을 내세우는 것은 욕심 사나운 것이겠지.

예술은 실험이자 운명

이상일 — 그런 뜻으로 선생의 서사극 이론도 차용된 이론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브레히트 — 서사극 이론도 포이히트방거(Feuchtwanger)의 시책에 의해 그의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비방당했고 동양연극은 원래 서사극 형태라고 말할 하지만 요는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과 공연의 방법론에서 누가 체계를 이론적으로 세워나갔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지, 서사극이란 장르개념으로는 성립되지 않지. 말하자면 서사적 드라마, 그러니까 소설적인 연극이라는 말인데 ‘소설극’이란 말이 되지 않지. 그러나 드라마·연극이 몰아붙이는 감정이입과 정화작용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상(事象)을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려면 거리를 갖고 비판하며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지겠지. 서사극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른 열중·몰입·심리적 정화작용을 배제하고 각성과 비판의 자세를 유지했으면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쉬울까.

이상일 — 그 이야기는 이제 상투적인 이

론입니다. 문제는 각성과 비판을 내세우다가 연극이 재미없어진다는 데 있어요. 선생께서도 그럴까봐 서사극에 대중적 요소의 도입, 그러니까 자전거 경륜이라거나 권투시합 방식까지도 도입하고 《싸구려 오페라》에서는 괜히 고상한 척하는 고전음악마저 실험적으로 파괴하기까지 했는데….

브레히트 — 예술은 실험이에요. 나의 일생은 실험의 연속이었어. 인간접촉에 대한 실험, 작품창작에 대한 실험, 이념과 사회현실의 접촉에 관한 실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를 일면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실험은 운명일 수도 있지. 내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망명에서 돌아와 동독의 베를린으로 간 것도 내 삶의 실험이었다면 베를린 앙상블 극단을 이끌고 동독정권의 지원 아래 실험이라는 자유를 이데올로기의 제한 아래 시도해본 것도 큰 의미에서의 실험이었으니까.

이상일 — 어쩌면 당신은 처음부터 마르크시스트로서, 혹은 공산주의자로서 이데올로기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당신의 실험은 예술상의 실험이 아니라 브레히트적 삶의 실험처럼 보입니다. 예술은 별로 비중이 가지 않는 가벼운 존재이고 삶이, 인간생활의 궤적이 더 중요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개인의 삶의 궤적이 필요하다면 예술 따위는 버릴 수 있는 냉혹한 이성주의자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구요.

브레히트 — 그런 표현은 맞는 것인지도 모르지. 내가 마르크시스트라는 것은 내가 사회과학도이며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예술은 황당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낭만주의라든가 종교적 신념 같은 것도, 그리고 마침내 이데올로기의 광신자들마저 내 세계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배타의 심리가 작품 가운데 냉소적인 관찰형태로 나타나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상일 — 선생의 방법을 동용하여 브레히트식으로 생각하고 비꼬고 풍자하는 ‘브레히티어’ (brechtieren) 수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브레히트 — 그런 경향은 일시적으로 있었겠지. 아무들은 어디에서나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파괴하며 새로 창

책과 파장

박 시백

소설책을 읽습니다.



주인공의 간단치 않은 운명을 예고하는 복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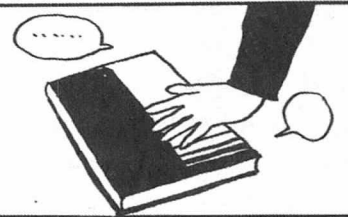
그리고 마침내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시련은 꼬리를 물고



어떡하나. 현실의 사람이라면 힘 당는대로 도와주더라도 할터인데



그렇게 살아있는 나의 인정은 안타깝다 아우성이지만 나는 안다.



막상 현실앞에 설때면.



나의 인정은 또 얼마나 조심스러워 지는지.

“선생의 작품들은 초기부터 후기의 4대 걸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증법적 기법이 동원되었고 어쩌면 작품마다 선생의 ‘짓거리(게스투스) 이론’과 ‘낮설게 하기(소외효과) 기법’이 실험적으로 가감되어 나갔다고 봐야겠지요.”



이상일 교수.

조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내 작품 가운데 아주 독창적인 것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있는 이야기를 해체시켜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구조 속에 던져보고 그를 통해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허황한 예술을 통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서사극 이론

이상일 — 브레히트 선생께서는 구원을 믿을 분이 아니신데…

브레히트 — 구원을 믿지 않기 위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보이기 위해서 서사극 양식을 도입하는 것이지. 진리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진리의 허상을 바라보게 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반(反)아리스토텔레스 이론가가 아니야. 반대에는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해. 나는 냉철한 사회과학도로서 사실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서사극을 도입했고 그 서사극은 감정보다 이성의 승리를 예감하는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고 봐야 해.

이상일 — 그런 의미에서 브레히트 선생의 실험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선생의 작품들은 초기부터 후기의 4대 걸작 《갈릴레이의 삶》·《사천의 선인》·《배짱어미

와 그 자식들》·《코카서스의 백목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증법적 기법이 동원되었고 어쩌면 작품마다 선생의 ‘짓거리(게스투스, Gestus) 이론’과 ‘낮설게 하기(소외효과) 기법’이 실험적으로 가감되어 나갔다고 봐야겠지요. 내 개인으로서는 선생의 그런 실험정신을 자유정신으로 보는데 어떻게 동독 사회주의의 정치체제 아래 그런 정신이 유지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브레히트 — 그래서 내가 일찍 죽었다. 더 건드리기 어려운 시점에서 나의 정신이 나의 죽음을 실험적으로 ‘데리고 논’ 것인지도 모르지. 죽지 않았으면 변절하든가 망명하든가 했겠지. 그나마 한국에서 삶을 마친 것이 다행이지.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은 20세기 초반 서구연극의 골목길에서 탈출의 열쇠를 쥐어주었던 동양연극의 서사극 방식을 전통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동양, 특히 한국의 마당극에서 어쩌면 실험의 삶으로 개화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해요.

이상일 — 한국에서는 창조적으로 계승된 브레히트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상 인터뷰, 고맙습니다. ❖